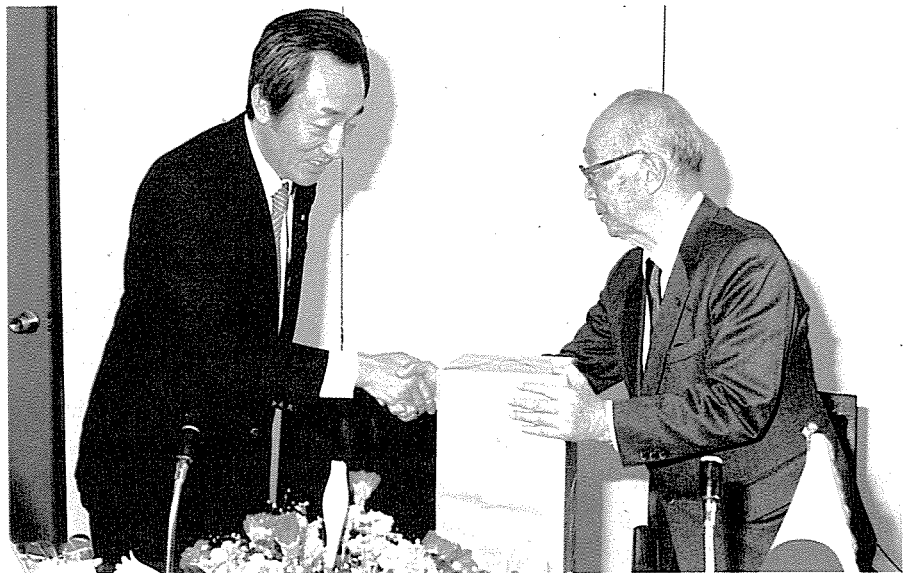


韓 · 日建築士交



〈사진 上〉 오웅석 회장과 太田和夫 회장에 의해 한·일건축사교류촉진각서가 서명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

〈사진 下〉 양국 건축사간의 우의를 다지는 뜻에서 정성을 다한 선물이 교환되었다.



본회는 3월 30일 오전 11시 30분, 회의실에서 일본건축사회연합회와 양국 건축사 상호간의 이해·우의증진 및 기술 교류와 정보자료의 교환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본회 吳雄錫 회장과 일본건축사회연합회 太田和夫 회장이 서명한 「한·일건축사교류촉진에 관한 각서」에 의하여 양

회는 앞으로 「① 상호방문 시찰과 의견 교환 ② 기술의 교류 및 간행물등 정보자료의 교환 ③ 제외국의 제도·시책및 기타의 자료 교환 ④ 학술발표회 또는 전시회 등의 상호 참여및 공동개최 ⑤ 기타 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하게 되었다.

이날 조인식에서 吳雄錫 회장은 인사

流促進覺書署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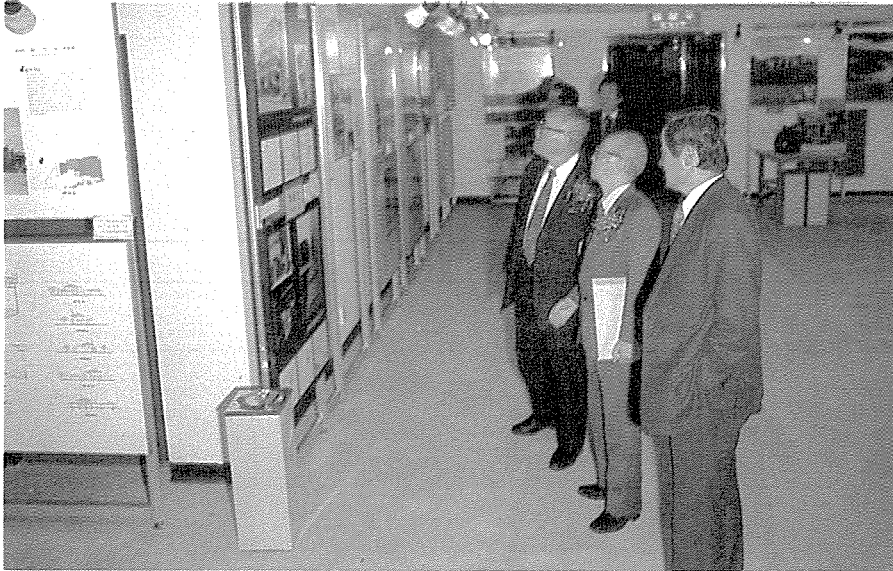
(사진 上) 각서 서명후 축배를 드는 장면. (왼쪽끝에서부터) 김기수 본회 부회장, 한 사람 건너 오응석 회장, 太田和夫 회장, 小野里光明 부회장, 町田幸一 사무국장.

(사진 下) 조인식을 마치고 건축사회관 앞에서 기념촬영

말을 통하여 「현대건축은 국경을 초월해서 널리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구·개발되어 나가야 한다」고 말한 다음 「한국과 일본의 건축사들이 서로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현대건축문화발전과 건축사들의 상호 권익신장을 위하여 교류를 시도하게 된 것은 실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게

되는 것」이라고 한·일건축사교류의 뜻을 새겼다.

이에 대해 太田和夫 회장은 「오늘 회의에 역대 회장까지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하고 「한국과 일본 건축사간의 교류를 깊게 해서 상호 문화발전에 기여할 각오를 하고 있다」고 양국간 건축사의 교류에 적극 협조해나갈 뜻을



〈사진〉 본회 전시실에 마련된 회원건축설계작품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는 일본건축사회연합회 (왼쪽에서부터) 小野里 부회장, 太田 회장, 町田 사무국장

吳雄錫 會長 人事

어제 있었던 우리들의 건축사회관공식에 이어 오늘 한·일건축사교류 촉진 각서서명식을 존경하는 일본건축사회연합회 太田和夫 회장님과 그 일행을 모시고 갖게된 것을 대한건축사협회 전회원과 더불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경축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그간 오늘의 한·일교류각서교환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주신 전임 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리적으로 불가분한 상호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도 동일문화권 내에서 긴 세월을 걸쳐 발전되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근세에 이르러 부분적으로는 한·일 두 나라는 서로가 특성을 가진 고유의 전통문화를 이룩하여 나왔습니다.

한국은 한국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건축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급격한 국제건축양식의 발전으로 잠시 자취를 멀리하고는 있으나 반드시 그 전통건축을 우리들은 되찾아 발전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일본 여러 곳을 방문, 여행하였을 때 지금도 계속하여 많은 기옥들이 일본 고유의 양식으로 지어지고 있음을 보고 느낀바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건축은 국경을 초월해서 널리 국제적인 차원에서 연구 개발되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건축사들이 서로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친선을 도모하고 현대건축문화발전과 건축사들의 상호 권익신장을 위하여 교류를 시도하게 된 것은 실로 역사적으로도 큰 의의를 갖게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한·일상호간에 책자와 자료를 교환하며 세미나 강연회등에 서로 초청할 것이며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의 건축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할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들은 친선을 도모하고 상호간에 고유의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현대건축의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太田和夫 회장님과 그 일행이 멀리 한국에까지 방문하여 이 자리에 동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밝혔다.

조인식은 양국 회장의 인사로 시작되어 양국참석인사 소개, 선물교환, 각서서명, 양국 상호관심사 협의의 순으로 진행되어 약 1시간 30분만에 끝났다.

한편 각서서명차 내한한 太田和夫 회

〈사진〉 본회 회장실을 예방한 일본 건축사회연합회 太田 회장 일행



太田和夫 会長 人事

제가 일본건축사회연합회 太田 회장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건축사협회 건물이 새로 준공되어 초청을 받게 되었고, 또 그동안 수년 전부터 한국의 여러 회장님을 비롯해서 건축사 회원님들이 일본을 방문해 주셨는데 작년 1월에는 김지태 전 회장님과 현재 회장님이신 吳雄錫 회장님께서 오셔서 그 때 일본 건축사의 여러 임원들과 건축문화를 교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받아 그런 일은 일본에서도 상당히 좋은 일로 찬성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조인을 갖게된 것입니다.

여기 참석하신 전임 회장님들께 그동안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吳雄錫 회장님께서 한국문화와 일본문화는 동일계통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단지 이 문화가 각각의 지역 여건과 환경에 흡수되어 특성있게 발전되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도 같은 생각입니다.

금일 회의에 吳雄錫 회장님이 나오시고 그 외에 임원만 나오시는 줄알았는데 역대 회장님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일본에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일본도 전통문화가 점점 멀어져가고 있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일본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다 보니 국민 전반적 현상으로 고유문화를 아주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인식을 저는 뜻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과 일본이 문화를 서로 교류하게 된 것을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금후 한국과 일본 건축사간에 서로 교류를 깊게 해서 문화를 발전시킬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장, 小野里 光明 부회장, 町田幸一 사무국장 일행은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2박3일간 체재하는 동안 양국 건축계 전반의 현안에 대하여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경복궁, 잠실올림픽 경기장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고건축과 현대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